

# 문학 ‘전통’ 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용재(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정한기(전주교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 〈 목 차 〉

1. 들어가며: 왜? 다시 전통인가
2.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교육 현황
  - 2.1. 교육과정에 반영된 ‘전통’과 ‘특질’
  - 2.2. <문학> 교과서에 반영된 전통과 특질의 교육 구성 방식
3. 전통 관련 교육의 문제와 그 해결 방향
  - 3.1. 문학 ‘전통’ 관련 학습 요소 선정의 문제
  - 3.2. 학습 제재 선택의 문제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한국문학 전통교육의 현황과 연계된 문제 제기와 문학교육의 적용을 위한 학술적 과제 찾기이다. 이를 위해 2015교육과정 <문학> 교육과정과 10종의 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전통관련 교육내용 구성방식, 학습 요소, 학습 활동의 전개방식과 문학제재의 선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학습요소의 선택과 문학제재의 선정에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 문학 전통과 특질 교육은 1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9종의 교과서에서

\* 이 논문은 2020년 전주교육대학교 육성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김용재(kyjedu@jnue.kr), 교신저자: 정한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 내용의 설명 방식이나 학습 활동의 전개는 비교와 추론,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하는 탐구학습의 모형으로 구성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연역적 방식으로 전통관련 설명을 제시한 후, 문학제재와 전통이나 특질 교육의 대응방식으로 학습활동을 선형적으로 구성하면 문학지식의 주입으로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전통관련 학습 요소의 선택은 학술담론에서 축적된 문학지식의 이양 방식에 치중하는 것보다 현재의 문화상황을 고려한 전통 교육요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 실천 사례로, 정신사 또는 사상적 측면의 특질에 주목하는 일, 서정장르의 특질 교육에서 시조나 민요 교육을 통해 전통적 율격을 강조하는 일, 서사 장르에서 구술문화(口述文化) 전통에 관심을 갖는 교육 활동이 있다.

학습제재의 선택을 위해서 전통과 특질교육에 대한 교육용 정전(canon)을 학계에서 필수제재와 선택제재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사적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설(說), 논(論), 기(記), 잠명류(箴銘類) 산문 등과 같은 문학교육에서 소외된 한문학 장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전통 문화의 연계성을 고려한 문학제재의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 즉, 음악, 미술, 공예, 일상생활 문화의 연계성을 전제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한 제재의 발견이 필요하다.

주제어 : 문학교육,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전통관련 학습 요소, 학습제재의 선택, 교육용 정전

## 1. 들어가며: 왜? 다시 전통인가

이 논문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학의 전통 논의는 거대 담론의 성격을 지니

고 있어서 어려운 과제이다. 문학 전통 관련 연구는 문학예술 자체의 탐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관점이나 인문학적 관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리에는 저널리즘 성격이든지 아카데미즘 성격이든지 상관없이 전통으로 여겨지는 국문학의 특질이나 내용이 새겨있다.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문학, 문화에 연계시켜 현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시”라는 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여러모로 전통 논의가 이루어졌다. 왜, ‘다시’ 말하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전통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문학 전통은 무엇을 말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국문학의 특질로 접근되어 왔던 일련의 주장과 형성된 전통의 관계 문제이다. 둘째, 왜 오늘날 ‘다시’ 말하려 하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에 주목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시대에 다시 전통을 논의하는 배경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한다. 셋째, 문학 전통 논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그 범위를 문학 교육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다. 왜냐하면, 전통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련의 작품의 해석은 국문학을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통에 대한 정의도 쉽게 정리할 수 없다. 일반적 정의를 따르자면, 전통은 “과거가 현재에 물려 준 신념, 관습, 방법 등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한 집단의 문화를 현재 그 집단에 속한 사람과의 관련성 속에서 바라본 것”<sup>1)</sup>인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수의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형식적, 양식적, 이데올로기적 속성으로 구성된 역사적 체계”<sup>2)</sup>이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의 개념과 성격은 매우 복잡하다. 전통은 과거의 문화 요소이지만,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호명된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성격은 보편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통의 호출’ 혹은 ‘전통의 발명’<sup>3)</sup>을 통해 끊임없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담론으로 구

1)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253면.

2) 김윤식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256면.

성하고 있다. 즉, 전통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어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의 표현, 곧 현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상상된 문화의 총체”<sup>4)</sup>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인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다시 전통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문화 상황이나 사회적 형태가 인문학에 여러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국문학계에서 전통에 대한 관심은 ‘개화기, 19세기말, 근대문학의 출발점, 신문학 운동 초기’로부터 시작되었다<sup>5)</sup>. 이후 1920-30년대의 국민문학과 활동과 ‘고전부흥운동’이 있었고, 1950-60년대 비평계를 중심으로 ‘전통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sup>6)</sup> 문학 전통 논의는 이와 같이 세 번의 시기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7)</sup>. 이후 1980년대에 전통이나 한국 문학 특질 논의가 문학사 서술이나 본격적인 학술 담론 형식으로 많이 발표된다.<sup>8)</sup> 이들은 국문학계의 전통 논의를 여러 측면에서 살피고 과학적 방법으로 국문학의 전개 과정을 조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 3) 이상의 용어는 윤영도에 의해 사용되었다.(윤영도,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담론:한국과 타이완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집』 4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참고)
  - 4) 진경환, 「전통과 담론」,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전통문화연구소, 2010, 159면.
  - 5)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논자는 김대행, 조남현, 성기조이며 이미 비평사 연구에서 일반화되었다.  
김대행, 「현대시 전통론을 위하여」,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조남현, 「전통과 시의 방법」, 『문학과 정신사적 가치』, 이우출판사, 1984.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에 관하여」, 임문혁 외, 『한국 현대문학과 전통』, 신원문화사, 1983.
  -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수영, 『한국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 7) ‘전통’ 논의의 전개에 관한 기존 연구 정리는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 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논문은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전통’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8) 당시의 학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김상태, 「한국문학의 특질에 대한 거시적 고찰」,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5집, 한국문화연구원, 1989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문학계의 전통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를 세 번의 과정으로 파악한다고 할 때, 각 시기마다 전통 논의가 부각되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상황의 급변성이 배경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전통을 호출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화 환경을 예리하게 바라본 결과라고 생각된다. 작가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이 소설을 쓰고, 독자는 인쇄물보다 인터넷과 영상 매체에 길들여 있다. 사이버 세상의 말이 권력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다시’라는 말에는 ‘세계화’가 보편적 진리라고 믿었던 이 시대에 국가 이기주의가 부활하는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이제 개인보다 집단이나 민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각성일지 모른다.

세 번째 문제는 전통 논의에 있어서 범위의 한정이다. ‘다시’ 전통을 말하기 위해서는 관점이나 범위를 한정해야 유용한 문젯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문학 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과 문학 교육은 상보적이다.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예술적 표현 전반이라고 한다면, 문학 교육은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문학능력)을 기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영유케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러기에 문학 교육은 문학 연구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술담론의 지식이나 방법론이 교육현장에 이양되어 하나의 진리나 공리로 환치되기도 한다. 전통에 관련된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 교육에서 전통이나 특질에 관련된 교육이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등학교 <문학> 교육에서 ‘전통’이나 ‘국문학의 특질’ 교육의 현황을 살핀다. 다음에는 ‘전통’ 관련 설명이나 학습활동, 문학 교육 제재 선택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의 전통 관련 교육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2015교육과정과 이에 바탕을 둔 10종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sup>10)</sup>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9) 김용재, 『한국 현대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 교육』, 태학사, 2018 머리말에서 발췌함.

10) 작년(2019년)부터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배포되어 대부분 1학

## 2.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교육 현황

### 2.1. 교육과정에 반영된 ‘전통’과 ‘특질’

현행 교육과정에서 ‘전통’과 ‘특질’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 드러난다. 초·중·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전통 관련 교육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어> 교과의 문학 교육은 문학의 입문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전통에 대한 관심보다 문학의 사적 전개과정이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작품 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일반선택 과목인 <문학>교과에서 내용 요소로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언급하고 있다.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그 영역을 크게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고, 이 중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의 내용 요소로 ‘개념과 범위’, ‘전통과 특질’,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문학과 시대 상황’,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한국 문학의 발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전통과 특질’은 성취 기준을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파악하고 감상한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성취 기준의 진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국문학의 특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하나의 공리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학 감상과 탐구를 통한 가치의 발견에 중점을 둔다. 실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한국 문학의 전통이나 특질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작품 전체에 대해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평가의 중점을 둔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에서 한국 문학 전통에 대한 교육은 초기 교육과정에서부터

---

기에 교육이 실시되었다.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비록 그 학습 내용이나 전통 요소의 추출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어>교과나 <문학>교과에서 국문학의 전통에 대한 관심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그 내용은 국문학계의 전통 논의와 끊임없는 교호작용의 결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학술 담론의 교육계의 이양 현상은 극히 당연하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학계에서 국문학의 특질로 제시된 내용이나 예시 작품이 교육 현상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제어 ‘전통’과 ‘특질’은 상보적 성격을 지닌 개념이다. 국문학의 특질로 추출된 내용이 후에 전통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전통과 특질은 별개의 학습 요소의 나열이 아니다. 자칫 특질은 고전문학에서 드러난 일련의 성격을 정선한 결과이고,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치 체계라는 개념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질은 개별 작품이나 시기별 또는 장르상의 성격을 조감한 결과이고, 이러한 특질이 보편성을 획득하면 전통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특질과 전통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 상호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문학의 성격을 개념화한 결과라고 해야

---

11) 국어과 교육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 교육이 각 교육과정기별로 어떻게 변모되고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하여는 조희정, 「국어과 교육의 한국 문학 전통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 163집, 국어교육학회, 2018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교수요목, 1차, 2차, 교육과정의 전통 관련 항목은 전통 교육이 당위적으로 요구되던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여 전통 교육의 기본 관점이 모색되고 정립되던 시기--(중략)--3차-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민족문학론의 관점 속에서--(중략)--확장된 개념들이 등장했다. 7차-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국 문학 전통 교육이 전제된 토대 위에서 교육 내용이 재구성되고 구체화되었다.” (같은 논문, 226면.) 이 논문에서는 <국어>교과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사적 전개를 정리하고 있어서 2015교육과정에서는 전통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였으나, <문학>교과까지 감안한다면, 문학 전통 교육은 지속성과 현재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어>과 문학 영역이나 <문학>교과에서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교육과정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 논문은 류수열·김세림·김형석, 「고등학교 문학 영역의 전통과 특질 관련 성취 기준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 61호, 문학교육학회, 2018이 있다.

을다.

## 2.2. <문학> 교과서에 반영된 전통과 특질의 교육 구성 방식

현행 <문학>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전통’과 ‘특질’과 관련한 교육을 채택하고 있다. 전통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단원의 안내 부분에서 전통과 특질에 대하여 직접적 설명 방식을 택한 경우와 학습 활동이나 보조 설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10종의 교과서 중 8종의 교과서에서 직접적인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고, 1종은 간접적으로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게 보조적 설명을 하고 있다. 1종의 교과서에서는 학습목표만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학습 활동이 없다.

전통 관련 교육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에서 각 교과서별 전통 관련 설명의 방식, 전통과 관련된 학습 요소의 선택 사항, 학습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문학제재의 선정 사항을 정리하였다.

<표 1>교과서별 전통관련 교육 내용 구성 방식

교과서 <sup>12)</sup>	전통 관련 설명 방식	전통 학습 요소	문학 제재	비고
A	회의록(‘(1)한국 문학 사전 편찬기’) 형식의 글로 입문 후 직접 설명(한과 신명, 자연 친화,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해학과 풍자	「상춘곡」, 「투명 인간」(성석제)	
B	간접 설명	시조 형식, 이별의 정한, 해학과 풍자	「제망매가」, 시조, 「서경별곡」, 「황조가」, 「공무도하가」, 「홍부가」와 「유자소전」(이문구)	학습 활동을 통한 탐구

C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어 직접 설명	해학과 풍자, 한, 언어유희, 과장된 진술 등	「이생규장전」 「하회 별신굿 탈놀이」	문학사 서술과 함께 간접적 활동으로 대처
D	없음	없음	없음	학습목표만 형식적으로 제시
E	직접 설명(한, 자연 친화, 풍자와 해학, 3음보 4음보의 율격 구조)	여성화자, 형식적 요소의 전승, 해학과 풍자	「속미인곡」,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 「미스터방」(채만식)과 「홍부진」	
F	직접 설명(한과 신명, 멋,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의식, 지조와 절개, 균형과 조화, 형식적 정제미, 음보 중심의 운율 감각, 함축과 여운)	여성화자, 해학과 풍자	「사미인곡」, 「님의 침묵」 「태평천하」(채만식) 「우리 동네 황씨」(이문구)	
G	직접 설명(멋, 한, 신명,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의식,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	판소리 전통 찾기, 전통적 율조와 향토적 소재, 민족의 보편적 정서 찾기	「홍보가」와 「관촌수필-제4편 녹수청산」(이문구) 「접동새」	
H	직접 설명(한의 정서, 자연 친화의 태도, 풍자와 해학,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멋과 신명)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	「홍보가」 「겨산호」(김관식의 시) 「만홍」(윤선도 시조)	

I	직접 설명(한과 신명의 정서, 해학과 풍자, 조화 속에서의 변형 추구, 공동체 문화, 율격적 전통, 무교적 세계관과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		「국수」(백석) 「떡」(김유정)	전통 문학을 현대 문학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
J	직접 설명(해학과 풍자, 한의 정서, 자연 친화)		「봉산탈춤」과 「봄·봄」(김유정)	과제 형식의 학습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 안내 성격의 직접적 설명에서는 전통이나 특질에 대한 학술담론의 주요 개념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의 전통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요소로 선택한 내용은 제한적이다. 주로 ‘해학’과 ‘풍자’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채택하였고, 이별의 정회, 여성화자의 성격과 한, 자연 친화 의식, 전통적 율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학습 활동의 제재 선택에 있어서도 장르별로 한정적이다. 특히 현대문학 작품의 제재에 등장한 작가와 작품은 그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관점에서 현대 문학 제재의 전통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안내된 문학제재는 몇몇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 이 현상은 시보다 서사 장르에서 심한 편이다. 채만식, 김유정, 이문구, 성석제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sup>12)</sup>. 고전문

12) 이하 교과서를 인용하는 경우, 알파벳으로 표기함. 구체적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A>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B>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C>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D>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E>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9. <F>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9. <G>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9. <H>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19. <I>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9. <J>한철우 외, 『문학』, 비상, 2019.

학의 경우에도 일정한 작품이 여러 종의 <문학>교과서에서 학습제재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서정 장르에서는 시조 몇 편과 「사미인곡」, 「속미인곡」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황조가」, 「공무도하가」, 「제망매가」, 「서경별곡」이 선정되기도 한다. 서사와 극 장르에서는 「홍보가」가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이생규장전」, 「하회별신굿 탈놀이」, 「봉산탈춤」이 제시되기도 한다.<sup>14)</sup>

문학의 전통 관련 학습 활동의 전개 방식은 대체적으로 작품의 특성 파악과 이와 연관된 내용 또는 형식에 있어서의 국문학의 특질을 파악하기,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문학 작품을 비교·감상하면서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학습 활동의 구성은 전통 학습 요소를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다.<sup>15)</sup> 일부에서는 문학사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통 요소의

13) 현행 <문학>교과서에서 제시된 작품은 채만식의 「태평천하」, 「미스터 방」, 김유정의 「봄·봄」, 「떡」, 이문구의 「우리 동네 황씨」, 「관촌수필」, 성석제의 「투명한 간」이다. 이 중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김유정의 「봄·봄」은 2011개정 <문학>교과서에서도 채택되었던 제재이다.

14) 서정 장르에서는 정철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서사와 극 장르에서는 「홍보가」가 가장 많이 실렸다. 이는 2011개정 <문학>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7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의 <국어>과에서도 전통 요소와 관련된 제재가 몇몇 작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희정(앞의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운율’에서는 「가시리」, 시조, 「사미인곡」, 「속미인곡」, 「시가의 3단 구성」을 위한 교육제재로 「제망매가」, 시조, ‘이별의 정한’은 「가시리」, 「진달래꽃」, ‘여성 화자’의 특성은 「가시리」, 「사미인곡」, 「속미인곡」, ‘자연 진화’는 「청산별곡」, 시조, 「관동별곡」, ‘해학’과 ‘풍자’는 「홍부전」, 김유정 소설, 「삼대」, 「태평천하」, 「봉산 탈춤」, 「양주 별산대놀이」가 채택되었다.

15) ‘전통’과 ‘특질’ 내용의 학습 활동 구성의 양상은 류수열·김세림·김형석, 앞의 논문, 34-37면을 참고할 것. 이 논문에서는 2011교육과정에 근거한 <문학>교과서를 분석하면서 학습 활동의 구성 방식을 연역식 흐름, 귀납식 흐름, 혼합식 흐름으로 구분하고 연역적 구성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특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진 개념에 적합한 특질 항목 중 하나를 ‘연결’하는 과정”(35면)이고 귀납식 흐름도 결국 연역적 방식을 아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편찬자의 설명을 통해 익힌 여러 가지 특질 항목 중의 어느 하나를 발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평면적 줄기”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다면, 학습 활동의 구성은 탐구

발견과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연역적 구성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일부에서만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사례1> (교과서 <E>)-----

【학습 단위 제재】「속미인곡」(정철)

【학습 활동】

1.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이 작품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여인을 각각 ‘갑’과 ‘을’이라고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 보자.  
‘갑’의 질문, ‘을’의 답변, ‘갑’의 위로, ‘을’의 하소연, ‘갑’의 조언
  - (2) 시상 전개 과정에서 ‘갑’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다음 시구에서 화자의 정서·태도를 시적 상황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시구 생략)
3. 이 작품에 사용 다음 소재들의 상징적 이미지를 파악해 보자.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낙월, 구름 비
4. 다음 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해 보자.  
(자료와 활동 생략)
5. 이 작품과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관해 이해해 보자.

정철의 「속미인곡」은 작가가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조정에서 쫓겨나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여서 화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통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현대시에까지 계승되고 있다.

- (1) 작가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여성 화자에 의탁해 나타냄으로써 거두고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 (2) 김소월이나 한용운의 시 중에서 「속미인곡」과 유사한 전통이 나타나는

---

학습 모형에 근거한 구성 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찾아 감상해 보자.

- (3) 「속미인곡」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외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로 어떤 것이 있을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해 보자.

<사례2> (교과서 <C>)

**【학습 단원 제제】** 시조 네 편(성삼문, 송순, 오경화의 평시조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제시

**【학습 활동】**

[한 눈에 보기]

한국 서정 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들	작품	작품에 반영된 양상
한스러움 해학 조화 이별 그리움	(가)	도덕적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지 못한 데 대한 한스러움을 표출함.
	(나)	
	(다)	
	(라)	

우리 서정 문학의 특질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자.

[초점 활동]

1.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해 탐구해 보자.

(1) “생략” 글을 읽고 향유층 파악하기 활동임.

(2) “생략” 견해1과 2 제시 후 토론 활동

2. 다음 글을 읽고 고시조의 계승 양상과 현대 시조의 특성에 대해 탐구해 보자.

(가) “생략”(‘시조 부흥론’ 설명문임)

(나) 현대시조 조운의 ‘상치쌈’ 제시

(1) <상치쌈>의 형식은 평시조의 형식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자.

- (2) (가)를 참고하여 <쌍치쌈>은 최남선과 이병기의 주장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시조인지 판단해 보자.
- (3) 1920년대 시조 부흥론이 제기되었던 이유와 관련지어 현재에도 여전히 시조가 창작되고 있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

학습 활동의 전개 방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과서 <C>와 교과서 <E>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E>의 경우는 대부분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먼저 학습 제재로 선택한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심화 학습 형태의 전통과 특질에 관련한 학습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5번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의 전통 요소로 “여성 화자 목소리로 노래”한 특질이 있음을 제시한 후 이를 학습 제재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 현대시에서 전통 계승 측면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찾아 확인해 보는 단계,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찾아 발표하는 과제 제시 단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C>의 경우는 일반적 학습 활동 구성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 서정문학의 특질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음, 학습 제재로 제시한 <시조>를 근거로 전통의 계승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비교 활동, 시조 부흥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글을 읽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현재에도 시조가 창작되는 이유를 추론하기로 구성하여 전통의 계승과 창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탐구 형식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사례1과 사례2를 볼 때, 문학 교육에서 전통 관련 교육과 같은 종합적 시각이 필요한 교육 내용은 <C>처럼 탐구학습 모형에 바탕을 둔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6)</sup>. 작품의 감상과 해석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16) 물론 <E>와 같은 구성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특성을 파악하여 전통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비교와 추론, 타 작품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의 발견보다 지식의 확인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많다. 제한적 시간, 한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서 이해와 감상, 비교와 대응,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방식보다 학습자의 탐구 능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옳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지식이 그대로 작품과 대응관계로 선형화되어 확인하는 과정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한 학습 내용이나 전통 관련 요소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과도한 과제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 작품을 제시하지 않고 발표나 토론을 유도하는 과제 부과는 학습의 포기 또는 활동 건너뛰기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3. 전통 관련 교육의 문제와 그 해결 방향

#### 3.1. 문학 '전통' 관련 학습 요소 선정의 문제

문학 전통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문학의 특질과 전통과 관련한 학습 요소의 선정에 있다. 학습의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통과 특질에 대한 개관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에서 전통을 설명할 때 동원된 내용 요소는 기존 학술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3>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 표현 형식 등의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은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다. 가령 어떤 이는 한의 정서를 우리 문학의 특질이라고 보

---

지식의 제공과 확인, 사고의 확장을 통한 학습자 책임 이양의 의미가 있다. 다만, 문학 교육 영역에서 심화된 해석과 종합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학습에서는 탐구 형식이 효율적이다.

지만, 감정의 응어리를 집단으로 발산하고 표출하는 신명,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이나 풍자 등을 우리 문학의 특질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문학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자연친화 의식,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지조와 절개,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멋 등도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양식적 측면에서는 형식적 정제미, 음보율 중심의 운율 감각, 함축과 여운 같은 특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정재찬 외, 171면)

인용문은 한국 문학의 특질을 짚은 글을 통해 개관하고 있다. 이제까지 학술담론에서 주장되었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모범적인 글이다. 이 설명에서 동원된 각 내용들은 이제까지 학계에서 주장되었던 특질 중 편찬자가 문학 교육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한 개념만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한국문학의 특질로 주장된 내용이 많이 있다. 국문학 관련 개론서나 문학사, 작가작품론, 장르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전통론, 국문학 특질론 등이 연구사만 정리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연구 담론이 축적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행 교과서에서 직접 설명을 통해 개관한 내용만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논의의 편의상 주제 의식과 가치관 측면, 미의식의 측면, 표현 형식의 측면<sup>17)</sup>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주제 의식과 가치관의 측면- ‘한’, ‘흥’, ‘자연 친화’, ‘이별의 정회’, ‘지조’와 ‘절개’, ‘균형’과 ‘조화’,
- 미의식의 측면- ‘해학’과 ‘풍자’, ‘멋’과 ‘풍류’, 인간과 현실 중심의 가치관,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

17) 국문학의 특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문학 자체의 성격을 일반화하여 표현 형식(‘어떻게’의 문제)과 내용의 실체(‘무엇’의 문제)로 구분하여 각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도 있다. 표현 형식은 서정, 서사, 극, 교술 장르에서 양식상의 특징, 내용의 실체는 주제 의식, 가치관, 사상, 미의식 등의 특성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국어>나 <문학>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주제의식과 가치관, 미의식의 측면, 표현 형식의 측면(미의식과 표현을 ‘표현 형식’으로 묶어 취급할 수도 있음)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표현 형식의 측면- ‘여성 화자’, 음보 중심의 ‘율격’ 구조, ‘합축’과 ‘어운’

<문학>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에게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학습 안내나 사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편찬자가 직접 설명문 형식의 글을 제시한다. 위의 내용은 이러한 설명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 특질을 모두 옮겨 놓은 결과이다. 설명에 동원된 특질을 일람해 보면, 학술적으로 학문적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를 받았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일반화되어 문학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필요성에 비해 설명 내용에서 누락되거나,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학습 활동에서 누락되거나 그 밀도가 적은 경우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는 현재의 문화 상황에서 <문학> 전통 교육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국문학의 전반적인 특질이나 전통의 문제, 서정 장르에서의 문제, 서사나 극 장르에서의 문제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사 또는 사상적 측면의 특질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 드러난 사상적 측면을 고찰하거나 시대의 정신사에 주목하여 국문학의 특질로 제시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의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배경에는 반드시 그 시대의 정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학 사상은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이는 문학 정신(이념)이나 세계관과 연결된다. 국문학의 사상적 측면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는 종교와 사상, 작가의 문학관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고전 문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무속적 세계관, 유교의 이념과 인간관, 불교적 세계관, 도선 사상, 당대의 학문과 사상 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사는 “이념적 차원을 현실적 역사의 차원과 결합시켜 이해하고자”<sup>18)</sup> “관념의 역사”를 추적한다. 작가나 시대 현실 속의 각종 사상적 배경은 정신사를 구성하는 주요 변인이다. 기록 문학이든 구비 문학이든 현재에도 유용

18) 이동하,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일지사, 1989, 18면.

하게 다시 호명할 수 있는 전통이나 특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공동체 의식이나 혈연 중심의 사고가 낳은 사상이나 정신의 흐름을 통괄하는 개념을 창출하거나, 오늘날의 문화 현상에도 보이는 의식이나 가치관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토대를 추적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서정 장르의 특질 교육에서 전통적 울격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가 문학의 형식적 특성으로 자주 거론되는 3음보, 4음보 형식의 울격, 정형성 등은 우리의 노래와 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고대가요로부터 향가, 속요, 시조나 가사 등은 그 바탕이 가창(歌唱)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적 울격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장르는 ‘시조(時調)’와 ‘민요(民謠)’이다. 시조는 육당의 선언대로 ‘조선 문학의 정화(精華)’이며 조선시가의 본류(本流)이다. 3장 6구로 구성된 시조는 본래 창(唱)을 위한 노랫말이었지만, 현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져 한국 고유의 시 형식으로 자리 잡은 장르이다.

동양권만 보더라도 각 나라는 각기 고유의 시 형식이 있고, 이를 되살려 문화상황에 맞게 즐기고 향유한다. 우리 고유의 시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보수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의 발현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조가 갖는 형식적 특성은 민요와 더불어 교육적 자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시조의 언어적 구성 특징으로 ‘체계: 병렬의 문법’, ‘행위: 설득의 표현과 전략’, ‘문화: 의미의 향유와 정체성’ 등의 세 측면으로 정리하면서 교육적 자질로 ‘성찰적 사고’, ‘소통: 노래의 양식과 관계 형성’, ‘경험과 공감’의 예술적 측면으로 정리한 바 있다.<sup>19)</sup> 이를 인정한다면, 국어과 또는 문학 교육에서 시조 교육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 현상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6-1학기(2015교육과정)에 2편의 고시조만 실렸을 뿐이다. 이도 시조의 형식 교육이 아니라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파악하기’ 활동자료로 「하여가」와 「단심가」가

19) 최홍원, 「국어교육 속의 시조, 시조 속의 국어교육」, 『시조학 논총』 48집, 한국시조학회, 2018.

제시되어 있다. 시조는 “노래하되 객관적으로 노래하기보다는 관계를 형성하여 노래하는 장르”<sup>20)</sup>로 발화의 주체와 그 대상이 명료하여 소통과 공감의 제재로 쉽게 즐길 수 있다. 전통적 리듬감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청자에게 구술이나 문자 언어로 형상화한다면, 문학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전통 학습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민요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민요는 “가창 집단의 창자와 청중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표현의 틀”<sup>21)</sup>로써 병렬의 방법<sup>21)</sup>으로 자신의 심경을 말한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가창을 통해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집단의 공유 감각을 넓혀 간다. 내용상으로는 ‘상대적 인식과 결핍’을, 형식적으로는 ‘풍자적 표현과 웃음’<sup>22)</sup>을 통하여 삶을 재인식하는 노래로서 그 교육적 가치가 지대하다. 전래동요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놀이 기능’의 노래는 ‘친교의 형성’에 기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공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적절할 뿐 아니라<sup>23)</sup>, 생활 속에서 전통 리듬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서사 장르의 특질과 전통 관련 교육에서 구어체, 구술 문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서사 장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한국적 이야기 방식의 대표적인 표상

20)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대출판부, 1986, 136면.

21)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2004, 249면.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네(‘진도아리랑’ 중에서)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과 대구 형식, 변화나 굴절의 효과를 드러내는 양식을 뜻한다.

22) 조하연, 「민요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일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7집, 국어교육학회, 2010.

23) 정한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의 양상과 전래동요의 교육적 의미」, 『한국민요학』 52집, 한국민요학회, 2018, 149-156면 참고. 이 논문에서는 해방기 군정청에서 간행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 30편(중복 수록도 있음)을 채록 민요와 비교 분석하였다.

인 구술(口述) 전통이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sup>24)</sup>라는 선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서사의 수용과 창조는 개인과 사회, 세계의 이해와 상상력 교양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설화와 고소설, 근대소설로 이어지는 우리의 서사 문학 양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 측면에서 볼 때, 설화의 구연(口演) 속성과 구어체 소설의 담론 특성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도 이를 일부 다루고 있지만<sup>25)</sup>,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서사 문학 전통은 구술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대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일부 작가들에 의해 ‘이야기하기’ 의식을 강화해 보거나 구술의 세계를 구체화하는 ‘구연(口演)’과 ‘염음’의 서술시학으로 한국적 이야기 방식에 주목했던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형식의 시도는 “작가, 서술자, 청자(독자), 작중인물 모두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 회복을 꾀하는 방식을 서사 문학적 전통으로 이어”<sup>27)</sup> 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10종의 <문학>교과서에서 김유정과 채만식, 이문구, 성석제의 소설에 주목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4) 우한용, 「서사의 위상과 서사교육의 지향」, 『서사교육론』,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1, 17면.

25) 주로 판소리 형식의 수용과 발전, 해학과 풍자 형식에 집중되어 있다.

26) ‘이야기하기’ 의식은 서술자가 이야기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인물의 우위에 서서 서술해 나가는 특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서술자의 설명적 권위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성이 강하고, 서술의 직접성이 강하다. ‘염음’이나 ‘구연’의 방식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강담사(講談師나 전기수(傳奇叟)가 구어의 형식으로 입담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특징이다. ‘염음’은 구비문학의 전승언어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정해진 장단에 갖가지 다채로운 사설, 반복과 삽입, 나열로 리듬감을 주는 수법을 말한다. ‘구연’은 현장성과 소통에 초점을 둔 생동감 있는 구어체 형식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재, 「채만식 소설의 서술시학-〈이야기하기〉의 힘」, 『한국 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189-200면 참고.

27) 박기범, 「구어체 소설의 문학 교육적 가치」, 『문학교육학』 51호, 문학교육학회, 2016, 213면. 이 논문에서는 근·현대 문학사에 나타난 구어체 소설 중 김유정, 채만식을 비롯하여 이문구, 황석영, 성석제, 이기호의 소설의 담론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작품이 <문학>교육에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한국 문학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 3.2. 학습 제재 선택의 문제

문학교육의 학습 상황에서 핵심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문학 제재이다. 교육성과 문학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일은 교과서 편찬자의 최대 고민거리이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문학 경험이 이뤄지는 일차적 통로가 되는 동시에 교수-학습 상황에서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이끌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문학 전통과 특질 교육의 교육 요소와 내용을 선정하였다고 해도, 이에 맞는 적절한 문학 작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문학 제재의 선정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과 문학교육 전문가 집단이 주체가 되어 ‘교육용 정전’(正典)<sup>28)</sup>을 적극적으로 교육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용 정전은 교조화되고 화석화된 정전의 모습에 매달리기보다 학습자에게 “소통 현상 중심으로 정전을 포착하여 경험하게 해 주는”<sup>29)</sup> 열려 있는 정전 논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문학사적 맥락이나 문학 자체의 문학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의 문화상황에 맞게 새롭게 호명되는 우수한 문학 텍스트의 발굴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장르별 교육용 정전은 필수 제재와 선택 제재로 나누어 제공하는 편이 문학교육의 적용에 도움을 준다. 필수 문학제재가 필요한 이유는 문화 상황이나 교육과정이 변한다고 해도 문학 작품이 테제가 되어 세대 간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유 감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의 성숙이나 공동체 삶의 지향성을 실현하”<sup>30)</sup>기 위한 지

28) 정전은 ㉠ 뛰어난고 우수하며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작품, ㉡ 시대를 초월하며 영원하고 기념비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 전형적, 모범적, 고전적 작품, ㉣ 반드시 계승될 가치가 있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읽히는 작품이다. (라영균, 『정전과 문학교육』, 『독어교육』 2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3) 교육용 정전은 교육 목적을 위해 선택된 정전을 말한다.

29) 박인기, 「문학 교육과 문학 정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문학교육학회 엮음, 『정전』, 도서출판 역락, 2010, 37면.

30) 김용재, 「개정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 제재 분석」, 『한국현대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교육』, 태학사, 2018, 347면.

름길이 되기도 한다.

둘째, 문학 교육 제재에서 소외되었던 문학 자료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사상이나 정신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테제는 한문학을 비롯한 기록문학에서 발견된다. 국문학의 범주론을 떠나 한문학 제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현행 교과서에서 문학 제재로 활용하고 있는 한시(漢詩)나 설(說), 논(論), 기(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한문학 장르를 활용하여 정신사적 흐름을 탐색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잠명류(箴銘類)산문<sup>31)</sup>의 문학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고전 문학 제재 중 상대적으로 소외된 교술 문학 제재 활용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중 잠명류는 한문학 양식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것으로서, 고려 시대나 조선시대 선비들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고 짧은 산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이 쉽다. 잠은 대체로 서문과 본문의 두 부분으로 이뤄지며 대체적으로 한 구(句)가 사언(四言)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잠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리학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명은 벼루나 거문고 등 선비들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을 소재로 하여 사대부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sup>32)</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명류 산문은 “텍스트 내용인 경계, 권면, 찬양, 깨우침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후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sup>33)</sup> 교육 효과가 있다. 또한 “주변 사물과 자연에 대한 사유와 소통”<sup>34)</sup>의 문체 특

31) 잠명류 산문이란 한문학 산문 문체 중 하나인 ‘잠(箴)’과 ‘명(銘)’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이다. ‘잠’은 “잘못 되기 쉬운 생활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조성운의 논문에서 인용)이다. 즉,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정신의 표출인 동시에 타인에게 권고와 독려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명’은 건축, 기물(器物), 문방, 그릇 등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물건 등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하기 위한 글이다.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좌우명도 명의 일종이다.

32) 조선시대 잠과 명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에 대하여는 김운조, 「箴銘類 산문의 전통과 『古鏡重磨方』」, 『대동한문학』 59집, 대동한문화회, 2019, 234-235면 내용 참고.

33) 조성운, 「잠명류 산문에 드러나 문화 향유 방식과 그 교육적 의미」, 『문화와 융합』 42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01면.

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적 맥락의 연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학습자의 문화향유 역량 계발에 도움을 준다.

셋째, 문학 텍스트 선정에서 타 예술이나 생활 문화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학 전통이나 특질 교육은 공동체 정신의 함양과 무관하지 않고, 문화 향유자인 학습자의 내면화에 집중되어야 효과적인 교육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 전통 문화의 기저에는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의 예술세계와 연계성이 강하고, 의상이나 음식 등 생활 문화와 깊이 연관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소재, 주제 의식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면 훌륭한 교육제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조, 민요, 속요와 가사 등의 운문 문학이나 가전체 소설, 고전소설, 판소리 사설, 한문학 등의 산문 문학에서 타 예술이나 전통 생활 의식이 반영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민족문학의 정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간 삶의 문화적 반영은 사회상이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학의 전통 교육을 위한 제재 선택은 문학 자체의 미학적 구조보다 생활의 보편적 특질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4. 나오며

문학 전통 교육은 학습 요소의 적절한 선택과 그에 맞는 적절한 문학 제재의 선정에 유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학습 요소는 학술담론의 지식의 이양 또는 발견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문학 제재의 선택은 한정적이고 기존 교육과정에서 예시된 자료가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문학의 전통이나 특질의 내용은 현재의 문화 상황과 연계시키면서 민족 문학적 관점에서 호명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나 문화 현상에 도움이 되는 정신과 사

---

34) 위의 논문, 103면.

상, 미학적 요소를 찾는 작업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통과 특질의 학습 요소는 우선 문학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정신사나 사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 문학의 경우 율격의 정형성, 음보 교육, 시조나 민요에 대한 강조가 요구되며, 산문 문학의 경우 구술 문화의 전통의 현대적 변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통과 특질 교육에서 흔히 거론되는 학술적 담론을 기초로 교육적 적용에서 강조될 요소는 무엇이고, 포기해도 좋을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학 교육과정의 실천은 시간적 제약이나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 제재로 선택되는 문학제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용 정진’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는 전문가의 집단 지성에 의해 구성된 필수 문학 제재와 선택 문학 제재의 활용이 유용하다. 필수 문학제재는 세대 또는 문화 상황의 변화에도 공동체 삶의 공유감각을 넓히는 데 중요 테제가 된다. 또한 제재 선정에 있어서 문학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장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교술 장르나 한문학 장르의 여러 양식은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가치관이나 사상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문학의 전통 교육은 과거를 호명하여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전통의 계승과 창조는 문학 학술 담론을 근간으로 하면서 역사학, 철학 등의 인문학적 성찰을 조감하는 종합적 시각이 유용한 문제 의식을 불러온다. 이때 타 예술이나 일상생활 문화의 탐색을 병행한다면 가치 있는 교육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9.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9.  
조정대 외, 『문학』, 해냄에듀, 2019.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19.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9.  
한철우 외, 『문학』, 비상, 2019.

### 2. 논저

- 김대행, 「현대시 전통론을 위하여」,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1.  
———, 『시조유형론』, 이대출판부, 1986.  
김병국, 「한국 문학 특질론—서양 문학과 비교에서」, 『한국고시가문화연구』  
1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993.  
김상태, 「한국문학의 특질에 대한 거시적 고찰」,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5집,  
한국문화연구원, 1989.  
김윤조, 「箴銘類 산문의 전통과 『古鏡重磨方』」, 『대동한문학』 59집, 대동한문  
학회, 2019.  
김용재,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 『한국 현대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 교육』, 태학사, 2018.  
김윤식 편저,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1976.  
류수열 · 김세림 · 김형석, 「고등학교 문학 영역의 전통과 특질 관련 성취 기준  
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 61호, 문학교육

- 학회, 2018.
- 박기범, 「구어체 소설의 문학 교육적 가치」, 『문학교육학』 51호, 문학교육학회, 2016.
- 박영호, 「문학전통의 계승과 변용」, 『한국문예창작』 6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4.
-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1950~60년대 전통논의의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34집, 민족문화사학회, 2007.
- 성기욱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2004.
-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에 관하여」, 임문혁 외, 『한국 현대문학과 전통』, 신원문화사, 1983.
- 염은열, 「시조 교육의 위계화를 위한 방향 탐색—시조 형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우한용, 「서사의 위상과 서사교육의 지향」, 『서사교육론』,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1.
- 윤영도,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담론:한국과 타이완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집』 4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76.
-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 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 정한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의 양상과 전래동요의 교육적 의미」, 『한국민요학』 52집, 한국민요학회, 2018.
- 조성운, 「잠명류 산문에 드러나 문화 향유 방식과 그 교육적 의미」, 『문화와 융합』 42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 조하연, 「민요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일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7집, 국어교육학회, 2010.
- 조희정, 「국어과 교육의 한국 문학 전통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 163집, 국어교육학회, 2018.
- 진경환, 「전통과 담론」,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전통문화연구소, 2010.

최원규, 「한국문학의 전통론 서설」, 『한국언어문학』 22집, 한국언어문학회, 1983.

최홍원, 「국어교육 속의 시조, 시조 속의 국어교육」, 『시조학 논총』 48집, 한국시조학회, 2018.

한수영, 『한국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 국학자료원, 2000.

홍기삼, 「한국문학 전통과 현대적 계승」, 『한국문학연구』 2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8.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raditional Education in Literature

Kim, Yong-jae · Jeong, Han-g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education on the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solutions.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raising questions linked to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education in Korean literature and finding academic tasks for the application of literary education. The <Literature> curriculum 2015 and 10 authorized textbooks were analyzed. This paper examined the composition of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learning elements, developmental method of learning activities and the problems of selection on literary materials. Also, it presented the selection of learning elements and literary materials.

Ten textbooks were analyzed, and in nine textbooks, the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offered various approaches to learning activities. The explanatory approach and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ctivities are more effective when constructing an exploratory learning model that utilizes comparison, reasoning, and textual interplay. If the traditional explanations are presented in a deductive way, and the study activities are organized linearly as a way of responding to literary theme, tradition or characteristic, it could end up with cramming of literary knowledge.

The selection of learning elements on tradition needs to be made to find the educational elements of tradition rather than focus on transferring literary knowledge accumulated in academic discourse. Some specific

examples includ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aspects, emphasizing traditional rule through Sijo poem or folk music education in the character education of lyric genre,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at are focusing on oral culture.

For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product, academia should present both the necessary theme and the optional theme of educational canon on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education. Moreover, in order to emphasize the spiritual and historical trends, peopl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ose alienated Korean literature genre such as the explanation, the argument, the description and the motto prose. Furthermore, they should focus on the choice of literary products considering the linkages of traditional cult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suppose the linkage of music, art, crafts and daily culture, and find products that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national cultures.

**Keyword** :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literary materials, educational canon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